

연대2015모의--인문(행복) 문제1

제시문 (가),(나),(다)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하지만 영향성과 대립성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 (가)는 제시문 (나),(다)와 개인과 타인의 행복의 영향성에서 상이한 관점을 보인다. (가)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독립적 관계를 갖는다고 본다. 제시문(가)에 드러난 사회에서 개인들은 각자의 운명이 있고, 따라서 각자의 의무와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 반면, 제시문 (나)와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간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본다. 제시문 (나)는 남편과 아내의 행복이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제시문 (다)는 개인들의 행복이 전체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와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대립성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제시문 (나)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대립 한다고 본다.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아내의 행복은 남편의 행복과 반비례한다. 남편은 출유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데에 비해 아내의 행복도는 남편이 집에 없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제시문 (다)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공존한다고 본다. 제시문 (다)에서 제시한 공리의 원리는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전체의 행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에서의 행복증진은 결국 공동체에 속해있는 개인들의 평균적인 행복증진과 영향이 있다고 본다.

연대2015모의 인문(행복) 문제2

제시문 (라)의 도표는 27개 나라 행복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도표의 Y축과 X축은 산술평균 즉, 각각 응답자 전체의 답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즉, 그 점수와 실제 점수간의 차이정도를 클수록 높은 값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X축을 기준으로 위는 표준편차가 높고 아래는 낮다. Y축을 기준으로 우측은 산술평균이 높고 좌측은 산술평균이 낮다. 즉, 국가군 B는 산술평균과 표준편차가 둘 다 높고, 국가군 C는 산술평균과 표준편차가 둘 다 낮다. 이는 국가군 B는 전체 행복도는 높지만 행복의 격차가 심함을 보여주고, 국가군 C는 전체 행복도는 낮지만 행복의 격차가 적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에서 보면 국가군 C가 더 이상적이다. 제시문 (나)는 전체 행복도가 높은 낮은 개별 편차가 심하면 좋지 않다고 본다. 이 제시문 에서의 남자가 하는 행동은 남자의 행복도를 높여준다. 하지만 여자의 행복도는 떨어뜨린다. 결국 이러한 격차는 전체 행복마저 깨뜨리려 한다. 이것이 국가일 경우, 문제는 더욱 커져 국가의 존재마저 위협 할지 모른다.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강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행복도가 높아도 개별 행복격차가 커서 위험한 B보다는 전체 행복도가 낮더라도 행복격차가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나 한쪽으로 몰린 희생이 덜 강요될 수 있는 C가 더 이상적인 국가상이다.

반면,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는 국가간 B가 더 이상적이다. 제시문(다)는 공리의 원리를 중시하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의 총합이 높을수록 옳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일 경우, 개개인 각자의 행복도 보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 행복도의 총합이 더 우선시된다. 이 공동체가 국가일 경우 제시문(다)는 개인들 간의 행복편차보다는 전체 행복도를 더 중시하게 되므로 그러한 B를 더 이상적국가로 본다.